



TRU5T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사회
INITIATIVE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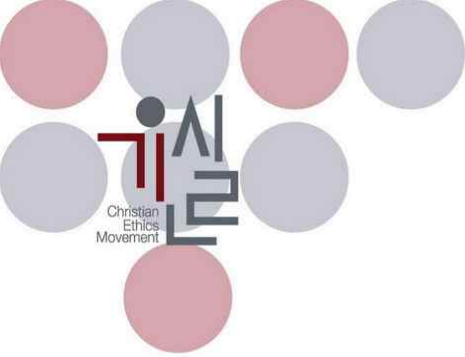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

2010. 1. 1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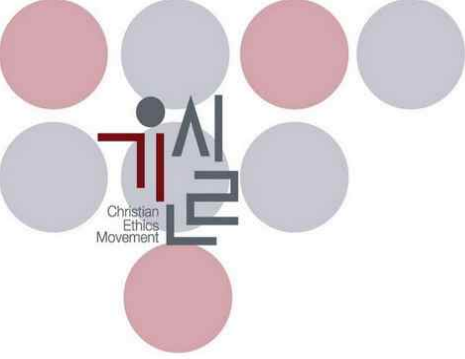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섬김 보고서

발행일 | 2010년 1월 15일
발행인 | 우창록
편집인 | 양세진
편 집 | 조제호, 권오재, 김태현, 손은혜
발행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이메일_ trust@trusti.kr
www.trusti.kr / www.trustchurch.net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고지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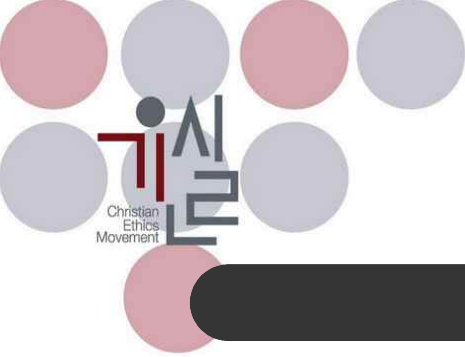




목 차

들어가며	4
1.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6
- 종합사회복지관	7
- 노숙인복지시설	9
2. 교육	
- 지역아동센터	10
- 사립학교	13
3. 대북지원 · 해외원조	
- 대북지원단체	16
- 해외원조단체	17
4. 의료	
- 의료기관	18
5. 나눔운동 · 자원봉사	
- 장기기증	19
- 자원봉사	21
참고자료	22





들어가며

기윤실은 2008년부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¹⁾ 여론조사 결과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약간의 신뢰도 증가가 있었지만, 국민 5명 중 1명만이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이 결과는 그동안 심정적으로만 생각되어 오던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음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되었다.

2009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60.3%가 '봉사 및 구제활동'을 꼽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한국교회에 대해 더 적극적인 봉사 및 구제활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6:3)'는 말씀에 따라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알리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차별화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에, 이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말씀에 기대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한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은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자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그동안 소문으로도 떠돌고, 오래된 통계로 간헐적으로 공유되던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 대한 현황을 취득 가능한 최근 통계를 통해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개교회 및 교단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개교회 주의인 한국교회의 특성상 전체 한국교회의 통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취합하고 있는 기관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1)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전화조사(95% 신뢰수준 ± 3.1%)





따라서 이번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는 실제 자료조사의 어려움과 자료의 빈약함으로 인해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하나 하나 조사분야를 넓혀 나가는 기초자료로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조사 작업결과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같이 전통적인 사회적 섬김 분야에서는 한국교회가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21세기 지구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 섬김의 영역에 대해서는 더욱 전략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교계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 조사는 2009년 10월 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이루어졌다. 인터넷 검색과 전화를 통한 직접 조사, 논문 및 정부발간물 등 각종 자료조사, 각 분야별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통한 방법 등으로 조사했다.

본 보고서는 사회복지, 교육, 대북지원·해외원조, 의료, 나눔운동·자원봉사 등 분야별로 각 종교별 기여도 및 한국교회의 기여 현황을 정리하여 한국교회의 활동과 더불어 각 종교의 활동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대하기는 본 연구조사를 통해 한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교회의 진정성이 우리 사회안에 온전하게 소통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한국교회가 사회를 섬기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과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0년 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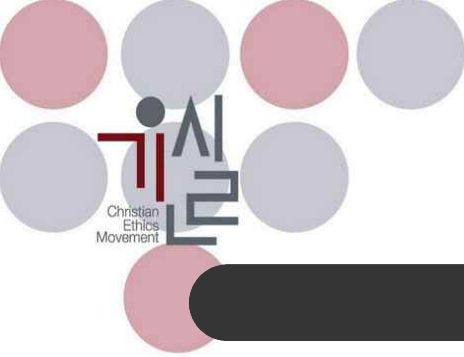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김동호 이동원 이장규 임성빈 주광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사무총장 양세진





1. 사회복지

○ 종교의 사회적 섬김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복지 부분일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감당한다고 할 때 가시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들 수 있다.

○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분류되나, 본 조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만을 전수 조사하였다.

1. 사회복지법인

○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1월 발간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 자료에는 주요 종교의 사회복지사업 주요 법인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각 종교의 사회복지사업관련 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법인 현황 >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 밖의 종교	계
사단법인	15	5				20
재단법인	3	3	2			8
사회복지법인	86	186	56	14	2	344
계	104	194	58	14	2	372

*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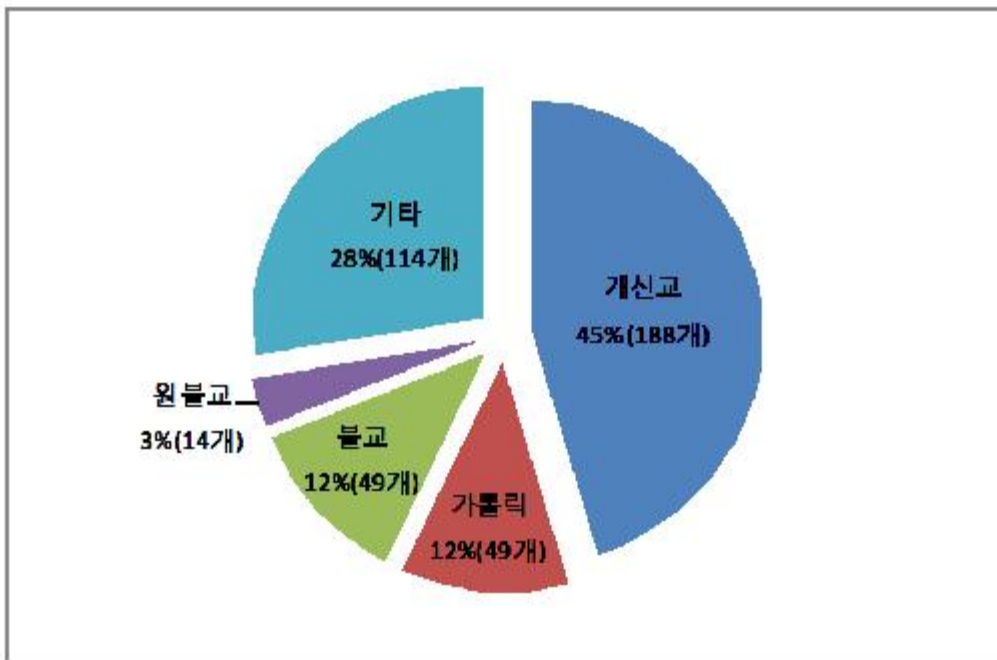
○ 이 자료를 토대로 종교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의 비율을 산출하면 **개신교가 52.15%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불교는 27.96%, 천주교는 1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종합사회복지관

○ 이에 기윤실은 사회복지법인과 별도로, 국민의 복지수요와 직접적으로 맞아있는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주체의 종교별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의 종교별 운영주체 분류 >



* 기윤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414개 종합사회복지관(2009년 9월 현재)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전수조사, 2009년 10월.

*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종교별 분류(복지관의 설립 및 위탁운영을 포함한 통계).

* 개신교의 분류기준은 교회, 기독교 학교 법인, 개인 등이 기독교정신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함.

* 기타는 종교단체와 관련없는 민간단체 및 학교법인, 4개 종교를 제외한 종교 등임.

○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주체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신교가 운영주체인 188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영주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곳은 92개소, 위탁운영중인 곳은 96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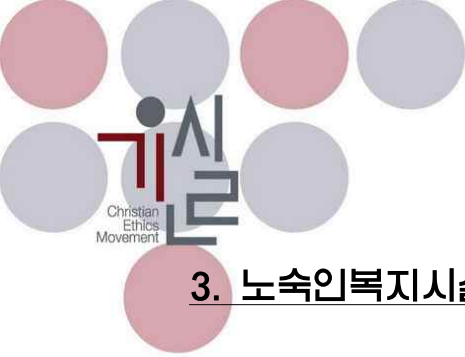
< 개신교법인이 운영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위탁운영 현황 >



* 기윤실, 188개 개신교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 및 전화조사, 2009년 10월

○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종교별 운영주체에 대한 조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교회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적 섬김을 감당한다고 할 때 사회복지관을 통한 섬김 뿐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3. 노숙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의 각 부분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한다. 한국교회봉사단(대표: 김삼환)은 2009년 2월 ‘2009 노숙인 실태조사보고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 노숙인복지시설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88개 노숙인복지시설중 운영주체를 종교별로 분석한 결과 종교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86개 시설 중 개신교가 54개로 62.8%의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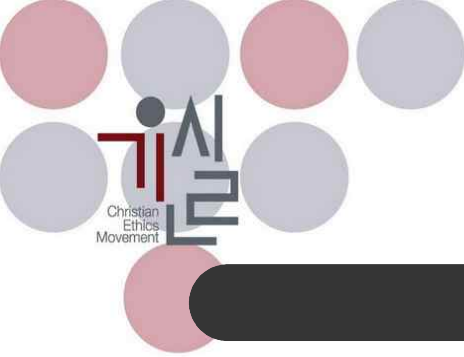
< 전국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주체의 종교별 분포 >

구분	빈도	비중 (%)
개신교	54개	62.8
불교	8개	9.3
천주교	5개	5.8
기타	19개	22.1

* 이봉재, 전국 노숙인 실태와 과제(한국교회봉사단, 2009 노숙인 실태조사보고와 토론회 자료집, 2009년 2월)에서 인용.

* 자료집에는 기독교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 자료집의 통일성을 위해 개신교로 수정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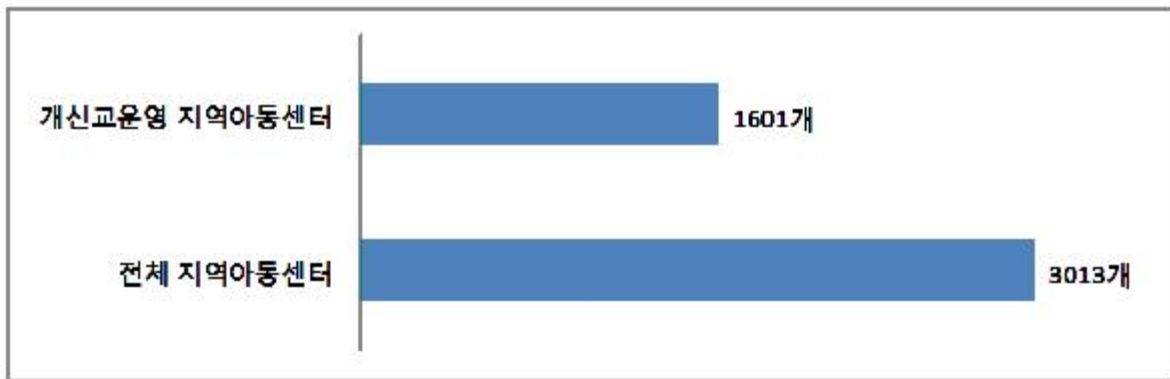
2. 교육

○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가 되면서 저소득 빈곤층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교육 없이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에서 한국교회가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업증진 및 멘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한국교회의 과제이다.

1. 지역아동센터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박경양)와 부스러기사랑나눔회(대표: 이경림)가 한국교회봉사단의 의뢰로 수행한 ‘개신교운영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책임연구원,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3,013개의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 개신교가 1,601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됐다.**²⁾

< 전국 지역아동센터중 개신교 운영 현황 >



* 이태수 외, 개신교운영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한국교회봉사단, '2009 기독교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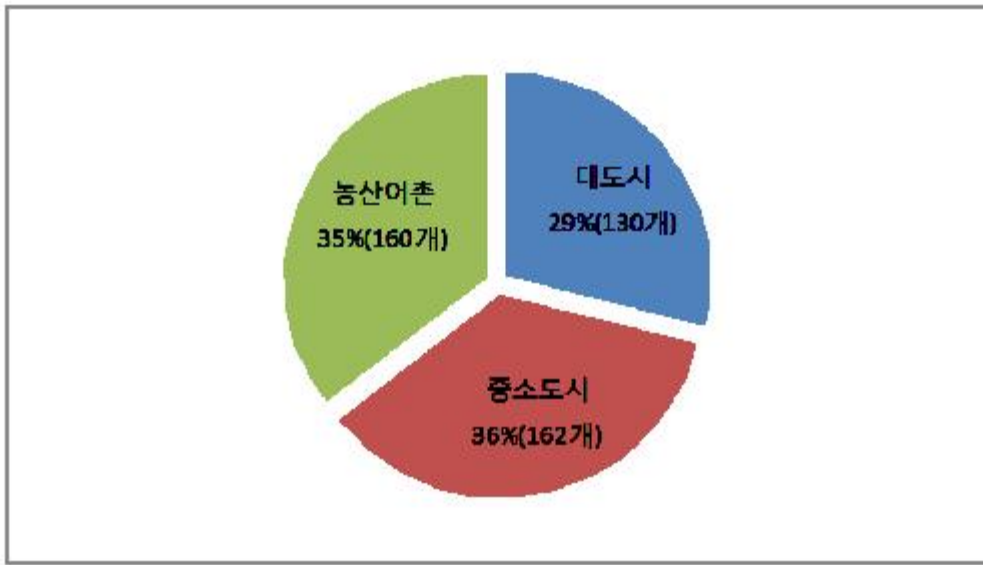
○ 이를 비율로 산정하면,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 53.13%를 개신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어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학습지원 등 교육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복지시혜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교육부분으로 분류함.



○ 실태조사보고서는 개신교 운영 지역아동센터 중 452개소로부터 응답받은 설문을 토대로 각종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신교 지역아동센터의 지역 유형 >



* 이태수 외, 개신교운영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한국교회봉사단 2009 기독교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또한, 운영주체의 교단별 현황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고 있다.

< 개신교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교단별 현황 >

전체	구세군	기감	기성	기장	기하성	성공회	통합	합동	기타
452(개)	5	52	9	27	20	2	92	128	117
100(%)	1.1	11.5	2	6	4.4	0.4	20.3	28.3	25.9

* 이태수 외, 개신교운영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한국교회봉사단 2009 기독교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 실태조사보고서는 개신교 운영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단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교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6.6%(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각 교단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각 교단의 지원여부 >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전체	452(개)	231	51.1	191	42.3	25	5.5	5	1.1	
교단	기감	52	34	65.4	17	32.7	0	0.0	1	1.9
	기장	27	5	18.5	18	66.7	4	14.8	0	0.0
	기하성	20	13	65.0	7	35.0	0	0.0	0	0.0
	통합	92	47	51.1	41	44.6	4	4.3	0	0.0
	합동	128	73	57.0	49	38.3	5	3.9	1	0.8
	기타	133	59	44.4	59	44.4	12	9.0	3	2.3

* 이태수 외, 개신교운영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한국교회봉사단 2009 기독교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2. 사립학교

○ 전국의 사립학교 중 종교별 운영 현황의 경우 다양한 통계를 정리해 볼 수 있다.

○ 지난 2005년 사학법 개정 문제로 종교계의 사학운영 현황에 대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 당시의 종교별 초·중·고등학교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각 종교의 초·중·고등학교 운영현황-2005 >

구분	초등	중등	고등	계
개신교	10개	123개	165개	298개
천주교	6개	27개	38개	71개
불교	1개	11개	10개	22개
계	17개	161개	213개	391개

* 참고자료1: 한겨레 21 제590호, 사학법, 15년 전을 아십니까, 2005년 12월 20일

* 참고자료2: 한국대학신문, (표)종교계 사학 얼마나 되나, 2006년 6월 13일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토대로 초·중·고등학교의 종교별 운영 현황을 밝히고 있다.

< 각 종교의 초·중·고등학교 운영현황-2008 >

구분	초등	중등	고등	계
개신교	22개	90개	126개	238개
천주교	7개	24개	37개	68개
불교	1개	15개	16개	32개
계	30개	129개	179개	338개

*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서 인용.





○ 이미 발표된 자료 외에 기윤실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여 '2009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및 종교단체별 학교수' 자료를 제공받았다. 교과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종교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각 종교의 초·중·고등학교 운영현황-2009 >

구분	초등	중등	고등	계
개신교	24개	97개	138개	259개
천주교	7개	26개	38개	71개
불교	1개	15개	15개	31개
계	32개	138개	191개	361개

* 교육과학기술부, 2009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및 종교단체별 학교수, 기윤실 요청에 따른 제공자료, 2009년 10월 29일
 * 2009년 4월 1일 기준.
 *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가, 전문계고가 분류되어 제공되었음. 위 표에는 이를 고등학교로 통합하여 정리.

○ 개신교 운영 사학에 대한 정부자료 외에 개신교 관련 단체의 통계를 찾아 본 바,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 백영철)의 회원학교 현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 홈페이지에 소개된 회원학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 회원학교 현황-2009 >

초등	중등	고등	계
13개	128개	177개	318개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홈페이지(<http://www.kfcs.or.kr>)에 게시된 회원학교현황통계 정리, 2009년 10월 29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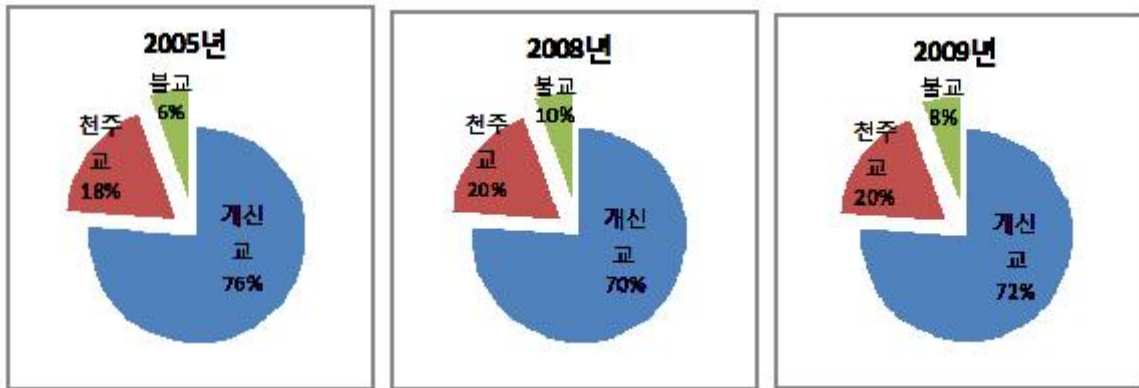
○ 이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개신교가 운영하는 초·중·고 사학은 최대 318개로 파악된다. 이는 같은 년도의 정부 통계보다 약 60개 정도 많은 것으로, 분류기준 등을 확인하여 통계 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가 많은 것은 종교별 분류를 할 때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학 외에 설립자의 종교에 따라 사학이 구분되는 등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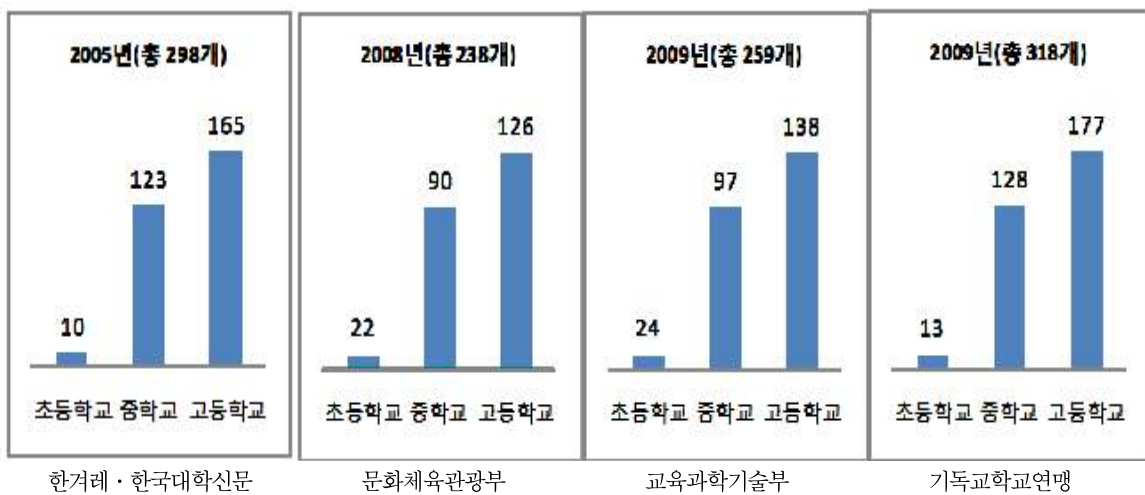
○ 파악된 통계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사학 현황 및 개신교 사학 현황을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종교별 사학의 비중은 전체학교 및 전체사학 대비가 아닌, 세 종교 운영 사학 대비 비중이다.

< 개신교, 천주교, 불교 운영 초·중·고 현황 >



* 기윤실, 2005, 2008, 2009 각 종교의 초·중·고 운영 현황을 퍼센트로 정리. 각 종교의 비중은 각 종교가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를 모두 합쳐 이를 비중으로 계산, 2009년 10월

< 개신교 운영 초·중·고 현황 >



* 기윤실, 정부발표 및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의 개신교 사학 운영 현황을 토대로 작성, 2009년 10월

3. 대북지원 · 해외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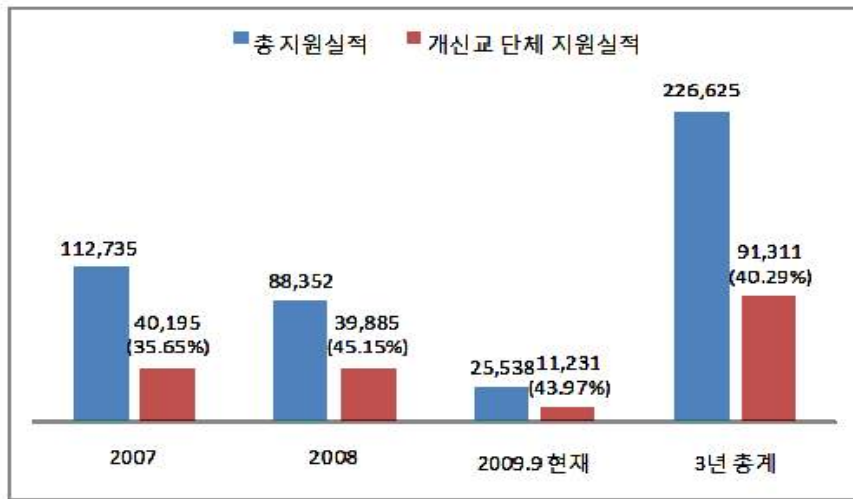
○ 대북지원과 해외원조 활동은 한국교회가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과 보편적 인류애라는 종교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1. 대북지원단체

○ 대북지원과 관련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국회에 제출된 통일부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북지원민간단체는 2009년 9월 30일 현재 79개로 이중 22개가 개신교 계열의 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신교 대북지원 단체는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의 도움을 얻어 분류했다.³⁾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3년간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현황과 이 중 개신교 단체의 대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은 9월 현재).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실적 및 개신교 단체의 지원 실적 >(단위: 1000\$)



* 출처: 통일부, 민간단체별 지원실적, 2009년 10월

*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액 포함, 한국적십자사 청구 제외

3) '개신교 대북지원 기관'은 ①명칭과 사명에 기독교적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조직 ②최고경영자를 포함하는 주요 종사자가 기독교인인 조직 ③대부분의 후원자가 교회(인)로 형성된 조직 ④창설의 모조직이 교회 혹은 교계 기관인 조직 등의 기준으로 조사하여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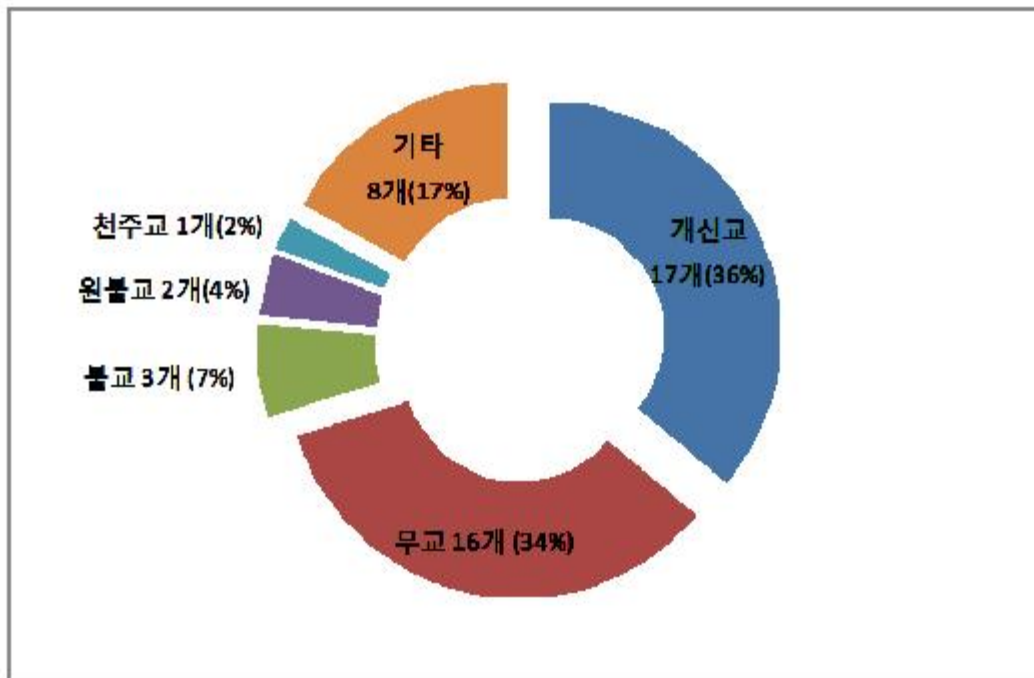
○ 지원 실적을 토대로 비중을 산출하면, 개신교는 3년간 민간단체의 대복지원 중 40.29%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각 년도별 비중은 그래프 참조).

2. 해외원조단체

○ 해외원조의 경우 관련단체들의 모임인 해외원조단체협의회(해원협, 회장: 박종삼)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 해원협에서는 회원단체들의 총체적인 지원규모는 밝히고 있지만, 개별단체들의 지원실적은 공개하고 있지 않아 지원규모 대비 개신교 단체의 지원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 대신, 해원협이 가장 최근에 펴낸 편람에 회원단체의 종교적 배경이 밝혀져 있었다. 해원협 회원단체의 36%가 개신교 단체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해외원조단체 협의회 회원단체의 종교적 배경 >



* 차명제, 2007년도 국제개발 NGO의 현황, 2007 한국국제개발협력 NGO 편람 수록자료에서 인용.

* 원 자료에는 기독교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개신교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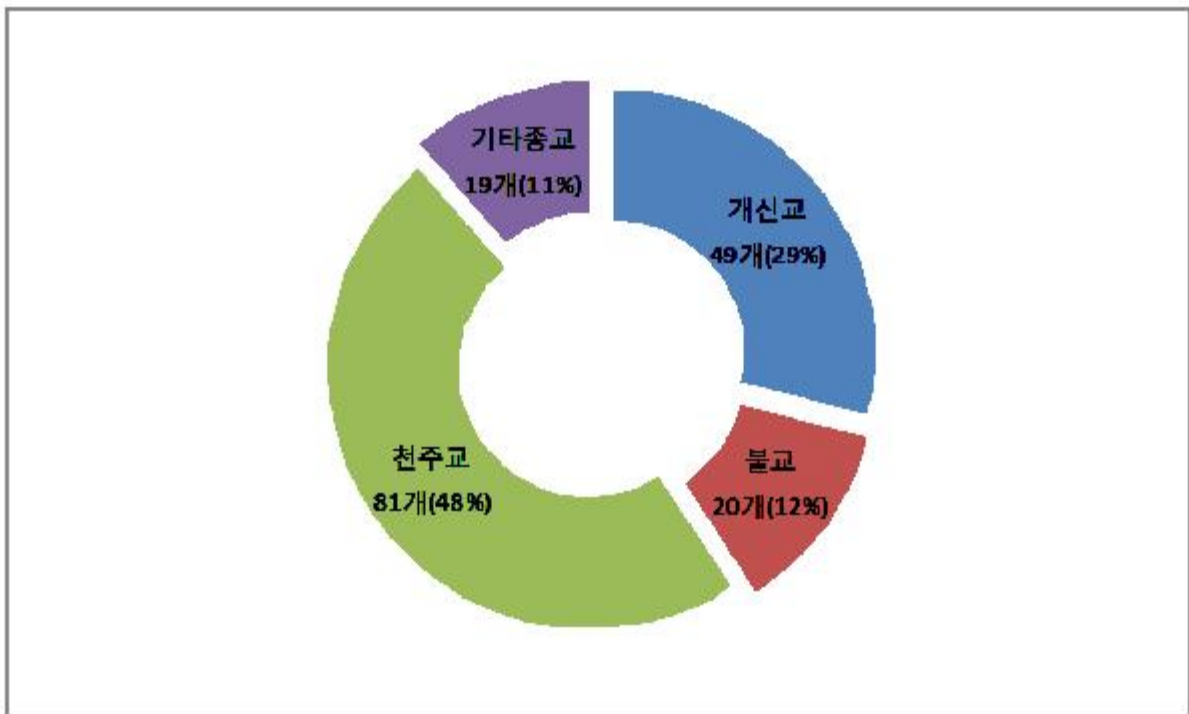


4.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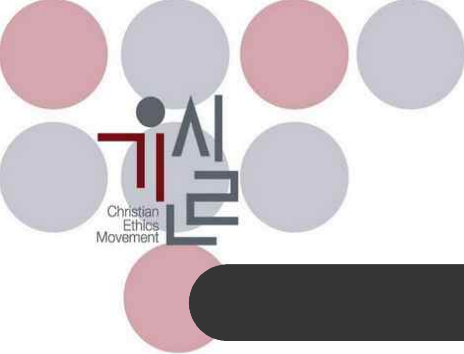
1. 의료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 한국의 종교현황' 자료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종교계 관련 통계가 조사되어 있다.

< 종교계 관련 의료기관 통계 >



*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서 인용.



5. 나눔운동 · 자원봉사

1. 장기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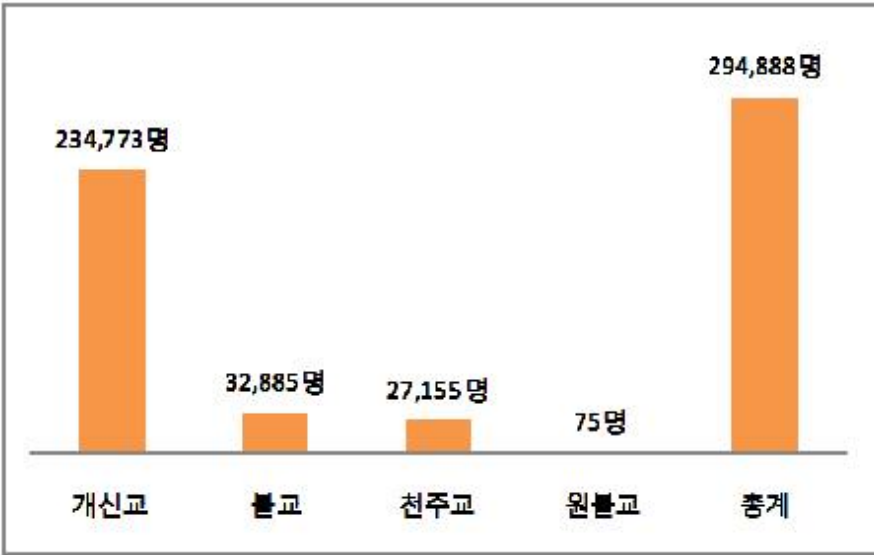
○ 나눔 운동의 종교별 기여에 대한 조사로, 국내의 대표적인 장기기증 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로부터 장기기증 등록자의 종교별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했다.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는 누적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363,496명, 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되어있는 586,407명의 62%에 해당한다.4)

○ 기윤실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기증 희망 등록자 중 무교와 종교가 확인되지 않은 등록자를 제외한 294,888명의 종교현황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파악된 장기기증 등록 희망자의 종교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종교별 현황 >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윤실에 제공한 자료, 2009년 10월
 * 1991년~2009년 10월 현재의 누적 집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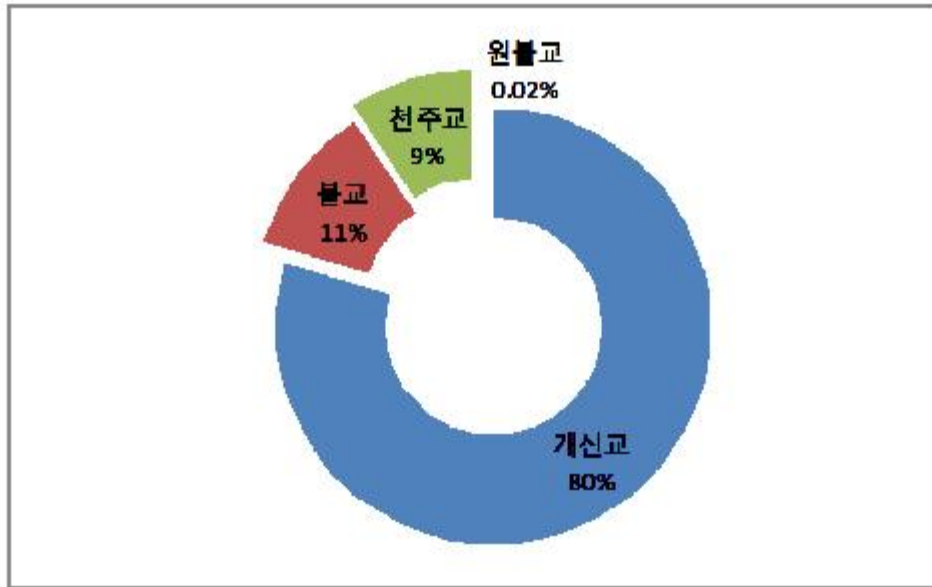
4)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는 <http://www.donor.or.kr>이며, 1991년~2008년 동안의 누적집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는 <http://www.konos.go.kr>이며, 1991년~2009년 10월 30일 현재까지의 누적집계





이를 비율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종교별 비율 >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윤실에 제공한 자료, 2009년 10월

* 1991년~2009년 10월 현재의 누적 집계임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개신교 단체임을 고려할 때 개신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정부분 단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개신교 신자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자원봉사

○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활동을 종교별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다만, 최근 전국민적으로 참여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에 대한 통계는 엄밀하지는 않지만 산출이 가능하다.

○ 한국교회봉사단(대표: 김삼환)은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한국교회의 자원봉사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받은 자원봉사 연인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자원봉사 현황 >

	자원봉사 연인원	한국교회 자원봉사 현황
인원(명)	1,226,730	700,000

* 자원봉사 연인원은 기윤실의 문의에 대한 충남도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의 답변

* 한국교회 자원봉사 현황은 한국교회봉사단, 2008 연차대회 자료집

○ 한국교회의 자원봉사 규모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자원봉사 인원의 57.06%에 해당한다. 한국교회봉사단이 밝힌 한국교회의 자원봉사 경로는 다음과 같다.

< 한국교회 자원봉사 경로 >

한국교회봉사단	태안군청에 신청	태안지역 교회에 개별적 신청 등
170,000명	180,000명	350,000명

* 한국교회봉사단, 2008 연차대회 자료집

참고자료

1. 인용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 한국교회봉사단. 『2008 연차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교회봉사단, 2008
- 한국교회봉사단. 『기독교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교회봉사단, 2009
- 한국교회봉사단. 『노숙인실태조사보고와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교회봉사단, 2009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7 한국국제개발협력 NGO 편람』. 서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7

2. 참고자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9
- 김홍권. 『좋은 종교 좋은 사회 - 한국 주요 종교의 사회 기여도 분석』.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한미준, 한국갤럽.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2009 경제위기속에서의 교회사회복지의 새로운 대안모색』.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9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07
-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서울: 한국갤럽, 2004
- 한반도평화연구원. 『한국교회와 평화통일』.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08

‘봉사하는 교회’ 신뢰도 높아졌다

■ 2009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 한국 사회의 개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약간의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지난해 가톨릭>불교>개신교 순에서 올해는 가톨릭>개신교>불교 순으로 바뀌었으며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9월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종교없음 471명, 불교 229명, 개신교 184명, 가톨릭교 110명, 기타 6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19.1%로 지난해 18.4%보다 0.7% 상승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5%로 지난해 48.3%보다 14.8%나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평균 점수도 2.82점으로 지난해 2.55점보다 0.27점 상승했다.

연령별 개신교 신뢰도는 20대가 낮은 반면 50대에서 높았고,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 경기지역이 높은 반면 영남지역이 낮았다. 소득 수준이 월 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뢰도가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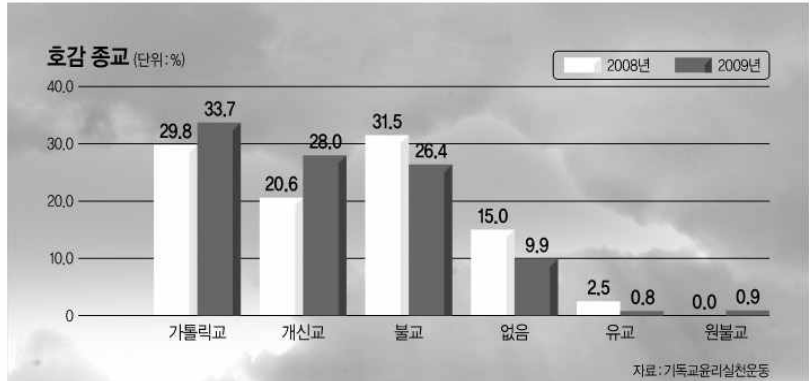
가톨릭이 2위... 불교 제쳐 용산 참사 등 어려운 일 앞장

은 반면 소득이 월 301만원 이상인 사람은 낮게 나타났다.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26.6%)가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4%)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하락 추세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선행의 올바른 가르침’(14.4%), ‘본인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믿음’(13.7%) 등을 꼽았다.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32.2%)가 가장 많았고, ‘교회 지도자의 무분별한 선교활동’(10.0%), ‘타종교에 대한 비방’(9.0%)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평가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신교회(26.1%), 불교(22.0%)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가톨릭교회 35.2%에 이어 불교가 31.1%, 개신교회가 18.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불교와 개신교의 순위가 역전됐다.



지난해 국내 3대 종교 중 최하를 면치 못했던 개신교의 신뢰도가 올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로 개신교의 봉사활동이 꼽혔다. 사진은 충남 태안반도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문화일보 자료사진

종교별 호감도 조사에서도 가톨릭이 지난해 29.8%에서 올해 33.7%, 개신교가 20.6%에서 28.0%로 각각 상승한 반면, 불교는 31.5%에서 26.4%로 급하락했다. 또 지난해 호감도를 지닌 응답자가 전혀 없었던 원불교가 0.9%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고, 유교는 2.5%에서 0.8%로 낮아졌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은 “지난 5월 통합 한국교회봉사단이 출범해 한국 교회의 이미지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용산 참사 때 여러 개신교 단체들이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한 모습을 보인 것 등을 개신교의 신뢰도 제고의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라며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피랍 사태의 여파가 사라지고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촛불집회와 이명박 정부와 교회와의 연관성 등으로 추락했던 신뢰도가 봉사하는 교회의 이미지로 높아진 것으로 보아 신뢰도는 교회의 본질보다 사회에 비춰지는 이미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들을 보다 전략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락기자 jrkim@munhwa.com

신뢰 약해진 교회 “사회를 섬기자”

개신교 최초 ‘사회적 책임’ 토론회

성인 3명 중 1명은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회가 개선할 점으로는 교인·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일치, 타종교에 대한 관용 등이 꼽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바른교회아카데미는 11일이 같은 내용의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8~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1%로 지난해 조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5%다. 신뢰하는 이유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가 21%로 가장 많으며,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지도자·교인들의 언행불일치(32.2%), 무분별한 선교(10.0%), 타종교 비방(9%), 기업화 현상(7.4%) 등이 지적됐다.

개신교회의 개선할 점으로는 교회지도자·교인들의 언행 일치(50.1%), 타종교 관용(20.5%), 재정 투명화(13.4%) 등이 꼽혔다.

‘호감을 갖는 종교’로는 가톨릭이 33.7%로 가장 많고, 개신교 28.0%, 불교 26.4% 순으로 나타났다. 기윤실 등은 이번 조사결과를 13일 공식 발표하며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개신교계에서는 최근 교회 성장세와 달리 신뢰도가 바닥을 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정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해선 사회적으로 신뢰 회복이 핵심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이기적 행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윤실과 지구촌교회·교회신뢰회

복네트워크 등은 지난 2~4일 지구촌교회의 영성수련원인 경기 가평의 필그림하우스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회가 열린 것은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다. 토론회에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와 높은뜻교회연합 김동호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성인 3명중 1명 “불신”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강조

이기적 행태 개선 주문

목사 등 목회자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신뢰 추락을 부른 개신교회의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방안 등이 나왔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쇠퇴를 부르는 주된 원인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개신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서 참여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공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교회들이 소명을 가장해 야망을 가지고, 목사가 주인이 되며, 세상을 잊고 버렸더니 이제 세상이 교회를 버리고 있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사회를 섬기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이사는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등의 활동 경험을 전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피폐한 농촌을 살리는 데 교회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교수는 “신뢰 회복 없이는 선교도 힘들다”며 영적·윤리적으로 갱

생해 사회적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복음의 본질’ ‘이웃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문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선언’도 발표했다.

양세진 기윤실 사무총장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회는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향후 정기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회 등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재기기자 jaeklee@kyunghyang.com